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6호 [루게 제24994호] 주체104(2015)년 8월 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뜻깊게 맞이하고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천만군민이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력사적인 진군길에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장소는 백두의 위대한 령장들을 높이 모시어 반제혁명승리의 전통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내여온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흠뻑 넘쳐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 오르고 장내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김일성, 김정일혁명강군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우리 국가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 동지에 대한 흥미의 열기로 용암처럼 새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황병사 동지, 박영식 동지, 리영길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편곡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악파도 같은 강인담대한 불굴의 배짱과 무비의 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방대한 침략군대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수호, 원수격멸의 전진항전으로 불려일으키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도예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로



전승을 빛나게 이어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열적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단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넘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심장의 고통을 더 높뛰게 해주는 노래 《죽어도 혁명선열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전격의 나팔수, 방사포의 일제사격파도 같은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종곡 《우리의 7.27》로 끝났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장내를 진감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이끄시어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시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가렬한 진화의 그날 전진적인 전선탄원가요로, 원수격멸의 남진행군가요로 전선과 후방에서 높이 울려 퍼진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승리하고 돌아오라》, 《우리는 승리했네》 등의 진시가요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백결불굴의 투쟁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멸의 수령찬가로 간직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의 선율이 장조하게 울려 자 장내는 백두의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흥미심으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관람자들은 날강도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으로 짓부셔버린 진화의 나날들을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전쟁의 3년간》은 침략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에 의해 강요된 가렬한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린 피가 얼마나 값비싼것이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잊지 말고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한다는 절리를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린 근위부대 용사들의

위훈을 형상한 남성중창과 경음악 《근위부대자랑가》와 준엄한 진화의 나날에 높이 울려 퍼지며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고무추동한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 남성합창과 관현악 《문경고개》, 여성 2중창과 남성방창 《샘물터에서》 등의 종목들도 무대에 올랐다.

일련단심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주체조선의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한 남성합창 《김정은장군찬가》, 《영광의 사열행진》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선군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관현악과 노래편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에서 출연자들은 미제가 이 땅에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다시 고대저은 무적의 총대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망하고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선군조선의 의지가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 인민성의 높이자 당성의 높이자

### 자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자강도당일군들이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사는 고귀한 지침이 있다.

그것은 새해 첫 2월 경에 하는 원수님에게 보내주신 뜻깊은 친필이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문제, 애로들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들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절세의 위인의 절절한 당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실천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도안의 시, 군들에는 지난 시기에 건설된 많은 지방공업공장이 있다. 이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도안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전반기공장의 현대화추진사업을 해당 당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는 즉시 현장에서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일군들이 난관에 부딪혔을것이 아니라 애제를 메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시키는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연유와 불건정제보장문제, 원료를 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 말은 파제를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은 인민의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1월 초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는 도당일군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특히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달려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당위원회는 도안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먼저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창건 일흔둘째주년을 맞이하는 시, 군들에 있는 식료공장을 현대화할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행정경제 일군들을 적극 불려들이었다.

당위원회는 도안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먼저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창건 일흔둘째주년을 맞이하는 시, 군들에 있는 식료공장을 현대화할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행정경제 일군들을 적극 불려들이었다.

이런 사실은 통해서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화신식정사업과 이신작적으로 일군들과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들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사실은 통해서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화신식정사업과 이신작적으로 일군들과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들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당 일군의 본분

### 김주관당위원회에 가면 군내인민들이 보

내온 수많은 편지들을 보게 된다.

남대현다리화장공사를 하니 정말 좋다는 율지주 주민의 편지도 있고 자연호복식수도복공사가 완공된 후부터 물고생물도 모른다 어느 한 마을인들의 편지도 있다.

해도 어머니는 마다하지 않으며 그 집에서 오만자루가 아니라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물린다 해도 그 모든 고생을 거머쥐어 달게 여기는것이 바로 어머니의 정정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이렇듯 사심없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민들을 보살필것을 요구하고있다.

《고생은 좋겠지만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보니 일할 보람이 큼니다.》

《고생은 좋겠지만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보니 일할 보람이 큼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것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당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고상한 품목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고생은 자기가 하고 행복과 영광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는것이 당일군의 고상한 품목입니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관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헌신에서 실질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말로써가 아니라 헌신적인 투쟁으로 표현된다것을 명심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 남다른 애정을 불어넣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충부, 실천가들의 일군이 되어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가 될 때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 오가는 말에서 찾은 교훈

오가는 말에서 찾은 교훈

오가는 말에서 찾은 교훈

### 성자가 클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성자가 클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성자가 클수록 더 높은 목표를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남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 조 선 인 민 군 인 들

### 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보천보에서 우등불모임 진행

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보천보에서 우등불모임 진행

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보천보에서 우등불모임 진행

### 합 경 북 도 에 서

### 도자기공장개건공사를 빨리 추진하라

도자기공장개건공사를 빨리 추진하라

도자기공장개건공사를 빨리 추진하라

### 합 경 북 도 에 서

### 도자기공장개건공사를 빨리 추진하라

도자기공장개건공사를 빨리 추진하라

도자기공장개건공사를 빨리 추진하라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장건 일흔둘까지 훌륭히 완공하라!

## 완공의 날을 앞당긴 능숙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대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튼튼한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빨리 번쩍 나가 해제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성리단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의 수리개로서의 기성과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서 이들은 수백기의 철탑세우기와 방대한 땅에 달하는 송전선 1회선늘이기 및 2회선늘이기를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었으며 최근 7호와 8호, 9호와 5호, 6호와 10호, 4호발전소의 육외변전소공사체제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3개 발전소의 육외변전소공사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발전소 1단계공사체제로 잘이나나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부반의 불리한 기후 및 지형조건을 이겨내며 많은 대상과 체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훌륭히 해제하고있는 이 혁신적성과

이들은 각 대대들이 해당 지역으로 시급히 진출하여 가설건물건설을 짧은 시일안에 끝내고 나무배기와 기초공사를 빨리 번쩍 나게 다그칠 수 있도록 노력 조직과 설비보장대책을 기동성있게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앞선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남포시대의 물적대원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철탑부품공급과 조립, 송전선늘이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함경남도대와 송전선건설사업소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독특한 측정방법과 삭도식운반, 새로운 기초공작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리단들의 각 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전기공급을 순간도 중단하지 않으면서 결사투쟁의 정신력으로 2회선늘이기공사를 완강하게 내달림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청천강용사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 보람찬 투쟁의 나날속에 전력공업성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무다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수십km구간의 철탑세우기와 송전선 1회선늘이기 및 2회선늘이기 등 방대한 땅에 달하는 공사과제를 1년이상이나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각 발전소 건설장들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꾼들의 능숙적인 전투조직과 완강한 실천력은 변전소공사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김문학, 윤정관동무들 비롯한 리단들의 책임일꾼들은 다른 단위들의 공시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적으로 조직 전개하였으며 특히 10개 발전소의 육외변전소공사를 도맡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수 있게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리영민, 신명봉, 서원일동무들 비롯한 일꾼들도 전반적인 공시수행을 이끈 것이 보장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수고를 아낌없이 기울였으며 리철훈동무가 로동안전대책을 신속하게 세우면서 발암이 따로 없이 공사의 결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오늘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설비시운전들이 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양의 전기가 송전선을 따라 공급되고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전력공업성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공사작업과 지휘를 능숙으로 전개해나감에 대한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제 힘을 믿고 펼쳐나설 때

최근 4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는 어느 단위들보다 공사에 뛰놀고 달라고 격려했던 공산당 당과 혁명도 적지만 용감한 청춘들이 건설을 신심있게 다그치며 앞서 나가는 단위들중의 하나로 소문났다.

언제와 발전기일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물건설때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마감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는 요즘 제일 어렵고 방대한 작업대상인 연세수문조립공사에서 애성을 뒤집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각 단위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본질의 의지로 부딪히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작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진전투로 돌리십시오.》

언제 수문부분품들의 조립을 앞두었을 때였다. 계당 무게가 10여t이나 되는 3개의 부분품을 지상확대조립과 가동점, 설치와 완성용접 등

다른 유대대 대진전투조립을 수문들이 선 위치에서 직접 하는 대담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방안대로 하면 좀이 많이 드는 반복작업을 없애고 수문조립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어 좋았다. 호프식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높은 용접기능을 요구하고 해당 용접기능기가 전문 1백m에 달하는 수문조립공사를 여러 대상공사를 다그치면서 빠른 속도로 내밀지나 용접공법들이 원만히 준비되지 못한것이 문제였다.

일꾼들은 현장에서 용접공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한개의 미세한 흠집이 연제의 안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일깨워주면서 화신식정리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이와 함께 로동조직과 설비비용을 합리적으로 기동성있게 하면서 용접자재보장을 제때에 따라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많은 발전소건설을 계획으로 이어 이 완공하려는 전투원들의 정신이 최대분출되고 기동성이 있는 조직사업이 안방현전 가운데 불꽃 한방울같이 수문조립공사과제가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었다.

이들의 경험은 무슨 일이나 계획을 믿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공사작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갈 때 못내일 일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당의 유대대 대진전투조립을 수문들이 선 위치에서 직접 하는 대담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방안대로 하면 좀이 많이 드는 반복작업을 없애고 수문조립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어 좋았다. 호프식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높은 용접기능을 요구하고 해당 용접기능기가 전문 1백m에 달하는 수문조립공사를 여러 대상공사를 다그치면서 빠른 속도로 내밀지나 용접공법들이 원만히 준비되지 못한것이 문제였다.

일꾼들은 현장에서 용접공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한개의 미세한 흠집이 연제의 안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일깨워주면서 화신식정리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이와 함께 로동조직과 설비비용을 합리적으로 기동성있게 하면서 용접자재보장을 제때에 따라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많은 발전소건설을 계획으로 이어 이 완공하려는 전투원들의 정신이 최대분출되고 기동성이 있는 조직사업이 안방현전 가운데 불꽃 한방울같이 수문조립공사과제가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었다.

이들의 경험은 무슨 일이나 계획을 믿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공사작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갈 때 못내일 일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 군인기질, 군인본태로 열어제끼 돌파구

평양시려단 선교구역대대에서

일어나갈 때 정령 못할 요새만 있을 수 없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이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화신식정리사업은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의 혁명적의를 적극 불려일으키면서 전진하는 대로의 기수, 화신의 기관자가 되어 어렵고 힘든 모험이 다에 남지 않는 결사투쟁을 벌였다. 이에 발맞추어 모든 돌격대원들이 결사투쟁의 투쟁정신을 지니고 버려온난전투에 산악같이 밀려나갔다.

맞붙이전에서 질풍전으로, 질풍전이 마데전으로, 돌격대원들은 한번에 더 많은 버려를 나르기 위하여 질풍보다 2배나 되는 마데전을 선택하였으며 모두가 하루 최고 220마대를 돌파하기 위한 전투를 치열하게 벌렸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대대에서는 종전보다 전투목표를 1.5배이상으로 높이 내세우고 로동조건보장과 후방사업을 앞세우면서 사회주의전쟁을 신속하게 조직하였다. 추월준투를 비롯한 1소대의 돌격대원들이 매일 170리에 달하는 거리를 줄기차게 내달리며 일별계획을 1.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할 때 김광명동무와 2소대의 전투원들은 설립전의 방법으로 많은 과제를 하나하나

조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떠오르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에서 발전소운영기동소전공과 동시에 종업원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업원살림집건설은 최근 3호로부터 12호발전소건설장까지의 수백리 지역에서 추진되고있다.

청천강기수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난 발전소의 경치 좋은 곳들을 일떠서고있는 종업원살림집들은 1동 2세대로 설계되어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개과화학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추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장지휘부일꾼들은 작업위인들의 넘쳐나고 청천강을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종업원살림집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살림집건설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수시로 조직하면서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최근 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에서는 불려날 남세 조건에서도 기초공작과 벽체속조공사를 진행하면서 목재보장 및 기동방법을 앞세워 현안공사도 본연있게 내밀었다. 하여 12동의 살림집의 기초와 미장, 창문틀기, 타일붙이기

## 늘어나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

해산의학대학에서

학림연구소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로 우리 식의 훌륭한 연구성과를 거두고있다. 연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수십건의 과학연구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학부, 강좌별계획에 따라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학생들도 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창고고안과 방염을 하여 여러 계통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연구사업에 열정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대학교원들의 연구성과는 그대로 교육사업성공과 이어지고 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 인민의 기쁨 넘치는 마전해수욕장

리 인민의 정서에 맞게 잘 꾸며진 마전해수욕장은 마전해수욕장으로 개칭되고는 문제들을 거듭 풀어주었다.

두레전 5월 선군혁명명도로 7차례 번 뜨는 가운데서도 몸소 마전해수욕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깨끗한 바다물과 맑은 공기, 햇빛과 아름다운 경치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바다물과 해변의 예방과 치료에도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며내려 대한 위환

## 늘어나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

해산의학대학에서

학림연구소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로 우리 식의 훌륭한 연구성과를 거두고있다. 연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수십건의 과학연구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학부, 강좌별계획에 따라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학생들도 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창고고안과 방염을 하여 여러 계통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연구사업에 열정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대학교원들의 연구성과는 그대로 교육사업성공과 이어지고 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 독자의 편지

지난 2월 어느날 뜻밖의 일로 의식을 잃은 아들을 업고 저는 정신없이 함경북도소야빙면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인들은 즉시 긴급의사회의를 열고 구급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중증으로 인한 전신쇼크에서 생명의 중환자였습니다.

의료인들은 밤잠도 잊어버리고 아들의 열에서 수시로 변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마전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해산의학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있다.

## 늘어나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

해산의학대학에서

학림연구소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로 우리 식의 훌륭한 연구성과를 거두고있다. 연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수십건의 과학연구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학부, 강좌별계획에 따라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학생들도 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창고고안과 방염을 하여 여러 계통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연구사업에 열정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대학교원들의 연구성과는 그대로 교육사업성공과 이어지고 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여 우리 명명이는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의 피하는 노력으로 26시간만에 의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이 글에 다 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담 받아안는 혜택으로, 용담 누리게 되어서는 행복으로 이어가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주의보건의제도의 인민적시책을 모두 받아안는 저와 우리 가정입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으로만 듣고 보아오던 인간사랑의 이야기가 평범한 우리 가정에서도 꽃피었으니 가슴뜨거운 현실을 배와 삶에 새겨서 저는 목청껏 떠날 것입니다.

인간사랑의 대화선, 사랑심인 사회주의보건의제도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 계도를 더욱 빛내어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청진시 청암구역 량양동 29인민반 최 정 조

# 온 거리를 조국통일유헌관철에 부르는 불멸의 기치

## 국제사회에 연대성 표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사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대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적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유헌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여 조국통일의 구실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사업에 대한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고고와 실험을 다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불문불유의 로고, 애국의 헌신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는 반식같은 토대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우리 겨레에게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명령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헌혈을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어머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어 조국통일사업의 전두에 나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을 발표하시어 온 겨레에게 수령님의 유헌관철을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을 안겨주시고 통일애국운동의 일대 전향을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명도 김일성동지께서 불우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헌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18

맞으며 온 거리는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헌양이 정진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헌을 기어이 관철할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 고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이 통일사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자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명도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역사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헌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사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고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어린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진진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변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립하여주시는것은 조국통일사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일적으로 계승하고 집대성하신 참으로 거대한 업적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할때 대한 문제, 민족공통의 이익을 앞세운 원칙에서 대안통일을 실현할때 대한 문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때 대한 문제, 변방방위에 기초한 민족통일유헌을 창립할때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개선할때 대한 문제 등

조국통일사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이 고전적로작의 발표는 오로지 조국통일사업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헌대로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을 높이 받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대단결의 손길에 의해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의 해발로 활활 타오르고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필멸 나뭇가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구절구절마다 딱박박 하는 무거운 애국의지와 거기에 담긴 사상사리의 과학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온 겨레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라 하여 조국통일운동선전에서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반북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북남관계가 화합과 통일의 궤도로 올라갔다.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되고 조국통일운동이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거족적인 운동으로, 사상과 정경, 소속의 차이를 뛰어 넘어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당의 앞선 진진대단결운동으로 확고히 확립되었다. 통일된 조선이 세계의 강국으로 솟아오르며 월 월 위황한 미래는 해마다 온 겨레의 마음을 뭉개어 격동시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은 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적대 단결하시어 자주통일사업완성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업적은 조국통일사업에 빛나는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명도업적을 헌양이 고귀한 유산으로, 조국통일사업완성의 든든한 밑천으로 삼고 그것을 굳건히 고수하며 빛나게 구현해 나감으로써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헌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민족성원모두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은 시대의 변화와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정세가 변화하고 조건과 환경은 달라져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필승의 기치로 높이 들고나가야 하며 민족공통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반북과 대결책동이 극도로 달고있고 오늘날의 현실은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통의 리의를 최우선시하고 사상과 주의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과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피해자들은 한탄으로는 **«해방»**을 운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와 공모협력

하여 반공화국책소동과 **«인권»**모략, 북침책정연속책동에 피어는 되어 날뛰고있다. 역적세력은 지어 가장 정당인 우리의 범죄로선까지 걸고들고있으며 **«통일준비»**나 **«민주»**하고 **«세계통일»**아양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북남대결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반역세력의 무분별한 망정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삼천 리강토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있다.

정세가 엄중하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이 아무리 악랄하여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헌을 기어이 관철해나갈 우리 겨레의 의지는 더렵혔다.

오늘 우리 민족의 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헌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하신,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명도, 고매한 인덕을 지니시고 온 겨레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헌을 관철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예지와 이 땅에는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예조의 명도사기 변함없이 호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귀한 한생을 바쳐 남조선 애국유신이 있고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드림없이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기에 조국통일의 전도는 막판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대결을 불멸의 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

조선의 북과 남이 서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함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북남관계에서의 대결한, 대변혁을 가져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재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북과 남이 하루빨리 대결을 풀장내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은 이미 실현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은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세계통일»**을 추후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에 반세기이상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온 조선에서 **«세계통일»**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함에 나서는 통일사업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타이주재사상연구소가 위헌정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을 변함없는 조선통일의 기치로 되었고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최고명도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조선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무대변이 없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 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원칙, 통일대강을 마련하였다고 지적하시었다.

조선의 북과 남이 서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리 대성 표시

하여 북남관계에서의 대결한, 대변혁을 가져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재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북과 남이 하루빨리 대결을 풀장내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은 이미 실현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은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세계통일»**을 추후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에 반세기이상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온 조선에서 **«세계통일»**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함에 나서는 통일사업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타이주재사상연구소가 위헌정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을 변함없는 조선통일의 기치로 되었고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최고명도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조선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무대변이 없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 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원칙, 통일대강을 마련하였다고 지적하시었다.

조선의 북과 남이 서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주변의 변혁을 가져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미국이 악명높은 탄저균을 삼아있는채로 오산미공군기지에 풀어놓은 세균실험을 벌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가를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더욱이 민족적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오만무제한 망동을 계속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는 미군속속들이 미국의 탄저균반입사건을 규탄하고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히 호위하거리는 사진이 실리었다. 강경군의 오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이 한장의 사진은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이쾰란드에서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처사를 제대로 응답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지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가를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더욱이 민족적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오만무제한 망동을 계속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는 미군속속들이 미국의 탄저균반입사건을 규탄하고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히 호위하거리는 사진이 실리었다. 강경군의 오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이 한장의 사진은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이쾰란드에서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처사를 제대로 응답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지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고하였다. 김정은은 미국은 즉시 도이쾰란드주변 미군기지에 있는 세균실험실과 지역 당국자들에게 공개한다 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남조선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탄저균 반입에 대해 **«행정협정 규정상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 매국협정에 코를 쾨인

## 가려난 주구들

미국이 악명높은 탄저균을 삼아있는채로 오산미공군기지에 풀어놓은 세균실험을 벌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가를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더욱이 민족적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오만무제한 망동을 계속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는 미군속속들이 미국의 탄저균반입사건을 규탄하고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히 호위하거리는 사진이 실리었다. 강경군의 오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이 한장의 사진은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이쾰란드에서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처사를 제대로 응답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지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고하였다. 김정은은 미국은 즉시 도이쾰란드주변 미군기지에 있는 세균실험실과 지역 당국자들에게 공개한다 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남조선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탄저균 반입에 대해 **«행정협정 규정상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문제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포를 애원하였고 명명 시장이라는지도 어정어정 미디어 사명관을 찾아가 **«민중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발표 속도가 아닌 실로 얼버튼 수작을 내밀고 황황히 돌아왔다. 그야말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부끄러워 짝이 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판이니 미군부리들이

또한 도이쾰란드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항의를 하라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미군부리들이

## 부당하게 억류한 공화국주민들을 즉시 송환하라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여러 나라 단체들이 7월 23일 남조선에 억류된 공화국주민들을 즉시 송환하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남조선이 억류된 공화국주민들을 즉시 송환하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남조선이 억류된 공화국주민들을 즉시 송환하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남조선이 억류된 공화국주민들을 즉시 송환하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반공화국악법정책강화를 위한 도의 반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7월 27일 피외의 교무앞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괴뢰당국이 모의된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26일 미국무성 6자회담 특사라는자가 남조선에서 피외의교무앞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방을 벌여놓았다. 미국의 다른 출판물들도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 있다.»**고 고하였다.

##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심판을 주장

남조선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7월 30 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과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고와 노예로 동을 강요한데 대해 사과하고 배상할 대신 피외의역사를 부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쓰비시

## 미국의 패배의 원인은 영원히 미국의 것이다

미군속속들이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을 규탄하고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히 호위하거리는 사진이 실리었다. 강경군의 오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이 한장의 사진은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이쾰란드에서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처사를 제대로 응답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지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재무위기 심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재무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있다. 7월 22일 동맹통계국은 유로를 사용하는 성원국들에서 1.4분



그리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긴축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 자 연 고 해

무더기비피해

월남의 땅 너에서 7월 28 일 레네에 많이 내리 내리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큰물 이 15명 이 목숨을 잃고 7명 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약 2840 제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다. 또한 143ha의 농경지에 심은 목 식물이 못쓰게 되고 880개의 양식장이 파괴되었다 한다.

큰물피해 확대

파키스탄의 관할주와 헤버르 파르코트와주, 발루치스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최근 큰 물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큰물로 7월 29일 현재 사망 자수는 86명, 부상자수는 56명 으로 늘어나고 2만 8588명의

살림집이 파괴되었다. 또한 도 물과 다리들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었으며 주민들에 대한 도움은 하나같이 우리 영웅에 죽 고양이처럼 기어올랐다. 엄청난 정 물을 받은 범죄자들은. 때문에 미 국도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대국의 체면도 다 쯤버리고 우리에게 머리 를 조아리며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사과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런자들을 찬양하고 추모 해 야 한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였는가. 아마 미국은 이따위 눈물 은 6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 당하였을 때 어떤 피해가 확대되고 있 는지.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수치스러운 패배의 전통은 영원히 미국의 것이다

말마침 미국의 정객들이 전후 남조선에 패배되었다가 개국음을 당한 이 공상과들과 병사들이 전향하는 기념물 을 세우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 였다.

결의안에서 그들은 조선전쟁참가 자들에게 **«비무장지대전쟁»** 혹은 **«일련적 전쟁의 잊혀진 전쟁»** 으로 알려진 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바로 정전협정 체결후에도 조선반도에서 정전적 계속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전쟁과정에서 미군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들이 있는데 **«투에블로»** 호상전처럼 세상에 잘 알려지지있지 는데도 그렇지만 많은것도 있다고 하였다. 결의안작성자들은 이 과정에 실 종되어나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자 들을 **«용사»**들로 추우어올리면서 그들 을 찬양하고 추모하는 기념물을 일 링턴국립묘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물론대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고 추 모한다는것인가. 미국이 말하는 **«잊 혀진 전쟁의 잊혀진 전쟁»**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영웅에 죽 고양이처럼 기어올랐다. 엄청난 정 물을 받은 범죄자들이. 때문에 미 국도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대국의 체면도 다 쯤버리고 우리에게 머리 를 조아리며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사과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런자들을 찬양하고 추모 해 야 한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였는가. 아마 미국은 이따위 눈물 은 6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 당하였을 때 어떤 피해가 확대되고 있 는지.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반공화국악법정책강화를 위한 도의 반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7월 27일 피외의 교무앞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괴뢰당국이 모의된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26일 미국무성 6자회담 특사라는자가 남조선에서 피외의교무앞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방을 벌여놓았다. 미국의 다른 출판물들도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 있다.»**고 고하였다.

미국이 악명높은 탄저균을 삼아있는채로 오산미공군기지에 풀어놓은 세균실험을 벌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가를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더욱이 민족적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오만무제한 망동을 계속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는 미군속속들이 미국의 탄저균반입사건을 규탄하고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히 호위하거리는 사진이 실리었다. 강경군의 오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이 한장의 사진은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이쾰란드에서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처사를 제대로 응답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지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심판을 주장

남조선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7월 30 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과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고와 노예로 동을 강요한데 대해 사과하고 배상할 대신 피외의역사를 부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쓰비시

## 미국의 패배의 원인은 영원히 미국의 것이다

미군속속들이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을 규탄하고 세균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히 호위하거리는 사진이 실리었다. 강경군의 오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이 한장의 사진은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이쾰란드에서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처사를 제대로 응답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지할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재무위기 심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재무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있다. 7월 22일 동맹통계국은 유로를 사용하는 성원국들에서 1.4분